

하여 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은 더 없는 영광이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서울초·중등원자력교육연구회(한국원자력교육연구회 결임)와 전남원자력교육연구회 두 곳에서만 조직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여 차세대 원자력 교육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원과 함께한 방사성동위원소 세미나



지난 8월 17일 우리는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가 주관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해교육을 위한 교원과의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어찌나 더웠는지 매미도 숨 가빠 헉헉대며 우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미나에 참가한 80명의 현직 교사들은 이 세미나가 방사성동위원소의 바른 이해와 차세대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좋은 연구 기회가 되었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이제 원자력교육연구회는 방사성동위원소라는 새로운 측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사성동위원소가 원자력과 무관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방향으로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교사의 올바른 인식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듯이, 점차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에 대한 이해는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보다 더 바람직한 학습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리고 정기적인 교사 연수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원 방사성동위원소 세미나는 충분한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방사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방사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미나를 위하여 과분하게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들 임원과 운영위원들은 원자력과 방사성동위원소의 바른 이해 교육을 우리들의 소임으로 알고 차세대 교육에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 주선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KRIA**